

■ [공통: 독서·문학]

01. ④ 02. ⑤ 03. ① 04. ④ 05. ⑤ 06. ③ 07. ② 08. ⑤ 09. ② 10. ④  
11. ⑤ 12. ② 13. ⑤ 14. ③ 15. ④ 16. ④ 17. ① 18. ④ 19. ③ 20. ③  
21. ⑤ 22. ① 23. ⑤ 24. ③ 25. ③ 26. ④ 27. ① 28. ⑤ 29. ① 30. ②  
31. ① 32. ④ 33. ② 34. ③

[1~3] 독서

[1-3] 독서 활동을 통한 소통의 즐거움

**지문해설 :** 이 글은 독자가 독서를 통해 소통의 즐거움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지 설명하고 있다. 독자는 자신이 속한 사회나 시대의 영향 아래 필자와 관련된 사회나 시대와 간접적으로 소통하게 된다. 따라서 독자는 같은 책을 읽더라도 배경지식이나 관점과 같은 독자 요인, 읽기 환경이나 과제와 같은 상황 요인에 따라 저마다 다른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독서를 통한 소통은 독자가 책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책이나 자신에게서 답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가능해진다. 또한 독자는 다른 독자와 소통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최근 소통 공간이 온라인으로 확대되면서 다른 독자들과 소통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양상이 더 다양해지고 있다.

**[주제]** 독서 활동을 통해 소통하는 즐거움과 그러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과정

1.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같은 책을 읽는 독자라도 독자 요인이나 상황 요인에 따라 저마다 소통 과정에서 다른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여기에서 독자 요인이란 독자의 배경지식이나 관점 등을 말하며, 상황 요인이란 읽기 환경이나 과제 등을 말한다. 따라서 읽기 환경과 과제는 독자 요인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같은 책을 읽는 독자라도 독자 요인이나 상황 요인에 따라 저마다 소통 과정에서 다른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② 4문단에서 독자는 다른 독자와 소통하며 기존 인식을 강화하거나 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식을 심화·확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③ 2문단에서 독자는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삶을 필자를 매개로 만나고 이해하면서 더 넓은 시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하였다. ⑤ 2문단에서 독서는 필자와 간접적으로 대화하는 소통행위이며, 독자는 자신이 속한 사회나 시대의 영향 아래 필자가 속해 있거나 드러내고자 하는 사회나 시대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독자는 자신이 속한 사회나 시대의 영향을 받으며 필자와 간접적으로 대화한다고 볼 수 있다.

## 2.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A]에 따르면 책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 독자는 책에서 답을 찾는 질문과 독자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보기>의 ㉔(‘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나에게 묻게 되었다.’)에 나타난 질문은 ‘독자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질문’에 해당한다. 그리고 ㉕(‘글 쓰는 일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꼈던 나를 발견’)에는 ㉔의 질문에 대한 답을 자신(독자)의 경험에서 찾아내는 모습이 나타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보기>의 ㉕는 ㉔에 대한 답을 ‘책에 명시된 내용’에서 찾아낸 것이므로, ㉕에는 ‘독자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질문’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보기>의 ㉔ 중 ‘이 내용들을 종합해 ~ 알게 됐다.’라는 데에서 ㉔에 대한 답을 ‘책의 내용들을 관계 지으며’ 찾아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㉔에 나타난 질문은 ‘독자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질문’에 해당한다. ③ <보기>의 ㉔에 나타난 질문은 ‘책에서 답을 찾는 질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㉕는 그에 대한 답이 아니라, ‘독자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질문’에 대한 답을 ‘독자의 경험’에서 찾아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보기>의 ㉕는 질문으로 보기 어려우며, ㉔에 나타난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㉕에는 ㉕가 아니라 ㉔에 나타난 질문에 대해 ‘책의 내용들을 관계 지으며’ 답을 찾아내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 3. 내용 해석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4문단에서 ‘책과의 소통을 통해 개인적으로 형성한 의미를 독서 모임이나 독서 동아리 등에서 다른 독자들과 나누는 일’이 ㉔(‘다른 독자와 소통하는 즐거움’)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㉔은 ‘자신에게 필요한 책을 찾아 개인적으로 읽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4문단에서 독자는 다른 독자들과 비슷한 해석에 서로 공감하며 기존 인식을 강화하거나 관점의 차이를 확인하고 기존 인식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식을 심화·확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③ 4문단에서 책과의 소통을 통해 개인적으로 형성한 의미를 독서 모임이나 독서 동아리 등에서 다른 독자들과 나누며 자신의 인식을 심화·확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④ 4문단에서 최근 소통 공간이 온라인으로 확대되면서 독자는 자신의 독서 경험을 담은 글이나 동영상을 생산·공유하며 다른 독자와 다양한 양상으로 소통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⑤ 4문단에서 최근 소통 공간이 온라인으로 확대되면서 독서를 통해 다른 독자들과 소통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양상이 더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4~9] 주제 통합

**[4~9] 인문, (가) 유서의 특성과 의의 / (나) 조선 후기 유서 편찬에서 서학의 수용 양상**

**지문해설 :** (가)는 유서의 특성과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유서는 고금의 서적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항목별로 분류, 정리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편찬한 서적이다. 일반적으로 유서는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 배열할 뿐 상호 비교하거나 편찬자의 해석을 가하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국가 주도로 유서를 편찬하였는데, 이는 이전까지의 지식을 집성하고 왕조의 위엄을 과시하는 데 기여하였다. 조선의 유서는 대체로 국가보다 개인이 소규모로 편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편찬한 유서는 새로운 지식의 축적과 확산을 촉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 유서의 특성과 의의

**지문해설 :** (나)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편찬한 유서에 드러나 있는 서학의 수용 양상을 시기별로 소개하고 있다. 17세기 이수광은 『지봉유설』을 편찬하여 당대 조선의 지식을 망라하고 중국에서 접한 서양 관련 지식을 객관적으로 소개하였다. 18세기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기존의 학설을 정당화하거나 배제하는 근거로 서학을 수용하는 등 서학을 지적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19세기 이규경은 『오주연문장전산고』를 편찬하면서 중국의 서학 연구서들을 지적 자원으로 활용하고 기존의 중화 관념에서 탈피하지 않으면서 서학을 수용하였다.

**[주제]** 조선 후기 유서 편찬에서 서학의 수용 양상

**4.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해설 :** (가)에서 유서는 고금의 서적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항목별로 분류, 정리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편찬한 서적임을 제시하고, 일반적으로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 배열할 뿐 상호 비교하거나 편찬자의 해석을 가하지 않았다고 유서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중국에서는 국가 주도로 편찬한 유서를 통해 이전까지의 지식을 집성하고 왕조의 위엄을 과시하였으며,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유서는 새로운 지식의 축적과 확산을 촉진하였다고 유서의 의의를 밝혔다. (나)에서는 17세기 이수광이 편찬한 『지봉유설』, 18세기 이익이 편찬한 『성호사설』, 19세기 이규경이 편찬한 『오주연문장전산고』에 드러난 서학의 수용 양상을 시기별로 소개하였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의 1문단에서 유서를 모든 주제를 망라한 일반 유서와 특정 주제를 다룬 전문 유서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서 유서의 분류 기준과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지는 않았다. ② (가)에서 유서란 고금의 서적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항목별로 분류, 정리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편찬한 서적이라고 그 개념을 밝혔다. 또한 유서가 이전까지의 지식을 집성하고 새로운 지식의 축적과 확산을 촉진하는

등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서 국가별 유서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③ (가)에서 유서가 중국에서 비롯되었다고 언급하였을 뿐 유서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학설을 검토하지는 않았다. ⑤ (가)에서 유서에 대한 평가가 시대별로 달라진 원인을 분석하지는 않았다. (나)에서는 조선 후기 실학자들 가운데 이수광, 이익, 이규경이 편찬한 각각의 유서를 통해 서학의 수용 양상을 설명하였다.

## 5.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가)의 1문단에서 유서는 중국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 배열할 뿐 상호 비교하거나 편찬자의 해석을 가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중국에서 주로 서적에서 발췌한 내용을 비교하고 해석을 덧붙여 유서를 편찬하였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의 2문단에서 조선에서는 전문 유서가 집중적으로 편찬되었고 전문 유서 가운데 편찬자가 미상인 유서가 많다고 하였다. 이는 간행을 염두에 두지 않고 개인적 목적으로 유서를 활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② (가)의 2문단에서 조선에서는 개인이 시문 창작, 과거 시험 등의 목적을 위해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 기록한 유서를 편찬하여 활용하고자 하였다고 하였다. ③ (가)의 2문단에서 조선에서는 중국 유서의 편찬 방식에 따라 필요에 맞게 유서를 편찬하였는데, 대체로 국가보다 개인이 소규모로 편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다. ④ (가)의 1문단에서 중국에서는 왕조 초기에 많은 학자들을 동원하여 국가 주도로 대규모 유서를 편찬함으로써 이전까지의 지식을 집성하고 왕조의 위엄을 과시하였다고 하였다.

## 6. 내용의 인과관계 파악

**정답해설 :** ㉞에는 평가가 더해져 저술의 성격이 있었다. 그러나 이규경이 ㉝에서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고자 서학을 활용한 것이 아니다. 이규경은 중국화한 서학 지식과 서학이 가지는 진보성의 토대가 중국이라는 서학 중국 원류설이 반영된 중국의 서학 연구서들을 통해 기존의 중화 관념을 탈피하지 않으면서 서학을 수용하고자 한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㉞의 편찬 의도는 지식의 제공과 확산이었다. 이는 이익이 ㉝에서 서학의 세부 내용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며 상호 참조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하여 소개한 것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② ㉞는 단순 정리를 넘어 지식을 재분류하여 범주화하는 방식으로 편찬되었다. 이는 이익이 ㉝에서 서학의 해부학과 생리학을 주자학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재분류하는 등 지식의 범주를 바꾸어 수용한 것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④ ㉞는 객관적 사실 탐구를 중시하는 경향과 자연과학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였다. 이는 이규경이 ㉝에서 서학의 천문학, 우주론 등의 내용을 수록한 것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⑤ ㉞는 주자학이 아닌 새로운 지식을

---

수용하는 유연성과 개방성을 보였다. 이는 이익이 ㉠에서 서학을 지적 자원으로 활용한 것과 이규경이 ㉡에서 중국의 서학 연구서들을 지적 자원으로 활용한 것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 7. 글에 드러난 관점, 내용 비판

**정답해설 :** 이수광은 주자학뿐 아니라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당대 조선의 지식을 망라하여 항목화하고 자신이 접한 서양 관련 지식을 객관적으로 소개하였다. 그러므로 일부 주자학자의 비판에 대해 이수광은 주자학이 아닌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주자학에 매몰되어 세상의 여러 이치를 연구하지 않는 것은 학문에 대한 열린 태도, 바람직한 태도가 아님을 강조하여 반박할 수 있는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지봉유설』에 대해 심성 수양에 절실하지 않다는 일부 주자학자의 비판이 있었음은 확인할 수 있으나, 이수광이 학문에서 의리를 앞세우고 이익을 뒤로 하는 것을 중시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③ 이수광은 주자학이 아닌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주자학이 아닌 학문이 번성하는 것을 문제시하는 것은 이수광의 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 ④ 이수광은 학문에 대한 열린 태도를 가지고 『지봉유설』에서 당대 조선의 지식에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기도 하였다. 유학 경전에서 쓰이지 않은 글자를 한 글자라도 더하는 일을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것은 학문에 대한 이수광의 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 ⑤ 이수광은 『지봉유설』을 통해 당대 조선의 지식뿐만 아니라 서양 관련 지식을 소개하였다. 이수광은 서학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의 지식을 수용하고자 한 것이다. 이수광이 배움과 익힘이 우리 학문의 여러 경전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것은 아니다.

## 8.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나)에서 『오주연문장전산고』는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기존의 중화 관념에서 탈피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보기>에서 『임원경제지』에는 서학이 가지는 진보성의 토대가 중국이라는 서학 중국 원류설, 중국과 비교한 조선의 현실 등이 반영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임원경제지』는 『오주연문장전산고』와 마찬가지로 중화 관념을 탈피하지 않고 중화 관념에 구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실학자들의 유서에는 현실 개혁의 뜻이 담겼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임원경제지』에는 향촌 구성원 전체의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실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임원경제지』에서 (가)의 실학자들의 유서와 마찬가지로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목적의식이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② (가)에서 실학자들의 유서에는 증거를 세워 이론적으로 밝히는 고증과 이에 대한 의견인 ‘안설’을 덧붙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임원경제지』는 기존의 서적들에서 향촌

관련 부분을 발췌, 분류하고 고증한 유서라고 하였고 안설을 부기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가)의 실학자들의 유서와 마찬가지로 『임원경제지』에 편찬자의 고증과 의견이 반영된 것이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③ (나)에서 『지봉유설』은 당대 조선의 지식을 망라하여 항목화하고 서양 관련 지식을 객관적으로 소개하였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임원경제지』에는 기존의 서적들에서 향촌 관련 부분이 발췌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임원경제지』는 『지봉유설』에 비해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편찬되는 전문 유서의 성격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④ (나)에서 『성호사설』은 기존의 학설을 정당화하거나 배제하는 근거로 서학을 수용하였다고 하였다. 한편 <보기>에서 『임원경제지』에는 향촌 구성원 전체의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향촌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집성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임원경제지』는 『성호사설』에 비해 향촌 구성원의 삶에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 9. 단어 사용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계몽하다’는 ‘지식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치다.’라는 뜻으로, ㉞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㉞는 ‘계승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의거하다’는 ‘어떤 사실이나 원리 따위에 근거하다.’라는 뜻으로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③ ‘용이하다’는 ‘어렵지 아니하고 매우 쉽다.’라는 뜻으로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④ ‘혼재되다’는 ‘뒤섞여 있다.’라는 뜻으로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⑤ ‘변경하다’는 ‘다르게 바꾸어 새롭게 고치다.’라는 뜻으로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 [10~13] 독서

### [10~13] 사회, 법령의 요건과 효과에서의 불확정 개념

**지문해설 :** 이 글은 법조문에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때, 법원이 어떻게 법조문의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하게 되는지 설명하고 있다. 민법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로 ‘손해 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들 수 있다. 계약 시 정한 위약금은 손해 배상 예정액일 수도 있고, 위약벌일 수도 있는데, 계약 시 정한 위약금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 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진다. 이때 채권자는 손해 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 배상 예정액만큼 배상금을 받을 수 있고, 법원은 재량에 따라 이를 감액할 수 있다. 그리고 위약금이 위약벌임이 증명되면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고, 아울러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하면 손해 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

---

한편 불확정 개념은 행정 법령에도 사용된다. 행정 법령이 규율하는 행정 작용 중에는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하는 특정 내용의 행정 작용인 기속 행위와 행정청에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 작용인 재량 행위가 있다. 행정청은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으나, 이 재량 준칙을 지키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이 아니다. 다만 재량 준칙대로 적법한 행정 작용이 반복되어 행정 관행이 생긴 후에는, 행정청은 평등 원칙에 따라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동일한 내용의 행정 작용을 해야 한다.

[주제] 법조문에 사용된 불확정 개념과 이에 대한 재량 판단

## 10.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행정 법령에 근거한 행정 작용에는 기속 행위와 재량 행위가 있다. 이 중 재량 행위는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그 효과인 행정 작용의 구체적 내용을 고를 수 있는 재량이 행정청에 주어져 있을 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 작용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이에 근거한 행정 작용은 대개 재량 행위라고 하였다. 따라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행정 법령에 근거한 행정 작용은 기속 행위가 아니라 재량 행위인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법조문에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이나 효과가 항상 일의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② 1문단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법조문에 대해 법원은 그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③ 1문단에서 법조문에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⑤ 1문단과 2문단에서는 개인 간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그리고 3문단과 4문단에서는 행정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를 다루었다. 따라서 불확정 개념은 두 경우에 모두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 11.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4문단에서 ‘특정 요건하에 재량 준칙대로 특정한 내용의 적법한 행정 작용이 반복되어 행정 관행이 생긴 후에는,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의 행정 작용을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특정 요건에서 적용된 선례가 없으면 행정 관행이 생길 수 없으며, 이 경우 행정청은 같은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재량 준칙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재량 준칙은 행정 법령에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었을 때 행정청이 재량으로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한 것이다. ‘일의적이지 않은 개념’은 불확정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재량 준칙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되면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려는 재량 준칙의 의도와 부합하지 않게 된다. ② 재량 준칙으로 정해진 내용대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 작용은 기속 행위가 아니라 재량 행위이다. ③ 행정청이 재량으로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한 것이 재량 준칙이다. 이 준칙대로 특정한 내용의 적법한 행정 작용이 반복되면 행정 관행이 생기게 되고, 그 후 행정청은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그 재량 준칙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량 준칙으로 규정된 재량 행사 기준은 ‘반복되어 온 적법한 행정 작용 이전’에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④ 행정청이 재량으로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한 것이 재량 준칙이다. 재량 준칙이 정해질 때 행정청이 재량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재량 준칙이 정해져야 행정청이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2.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나)에서 위약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했다고 했으므로, 1문단의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 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진다.’라는 내용에 따라 위약금 100을 손해 배상 예정액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을의 손해가 80임이 증명되었으나, 손해 배상 예정액이 이미 정해져 있었으므로 갑은 을에게 정해져 있는 손해 배상 예정액 100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손해 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는 조문에 따라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손해 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그 액수만큼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위약금 약정이 없었던 (가)에서 을의 손해 액수가 증명되지 못한 경우 갑은 을에게 80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③ (나)에서 위약금 100은 손해 배상 예정액이므로 갑은 을에게 100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된 경우와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 모두, 손해 배상 예정액인 100을 법원이 재량에 의해 감액할 수 있다. ④ (다)에서 위약금 100은 위약벌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였다. 2문단에 따르면, 이러한 위약금은 손해 배상 예정액과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 없으며, 이때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하면 손해 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18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은 재량에 의해 이를 감액할 수 없다. ⑤ (다)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 갑은 을에게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 10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없다.

## 13.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㉔와 ‘지킬’의 ‘지키다’는 모두 ‘규정, 약속, 법, 예의 따위를 어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실행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㉔의 ‘맞다’는 ‘어긋나지 아니하고 잘 어울리다.’의 의미로, ‘맞는지’의 ‘맞다’는 ‘어떤 대상의 내용, 정제 따위의 무엇임이 틀림이 없다.’의 의미로 사용되



었다. ② ⑥의 ‘들다’는 ‘설명하거나 증명하기 위하여 사실을 가져다 대다.’의 의미로, ‘들고’의 ‘들다’는 ‘적금이나 보험 따위의 거래를 시작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⑦의 ‘받다’는 ‘다른 사람이 바치거나 내는 돈이나 물건을 책임 아래 맡아 두다.’의 의미로, ‘받았다’의 ‘받다’는 ‘다른 사람이나 대상이 가하는 행동, 심리적인 작용 따위를 당하거나 입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⑧의 ‘고르다’는 ‘여럿 중에서 가려내거나 뽑다.’의 의미로, ‘골랐다’의 ‘고르다’는 ‘울퉁불퉁한 것을 평평하게 하거나 들쭉날쭉한 것을 가지런하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14~17] 독서

#### [14-17] 과학, 생명체의 기초 대사량 측정 방법과 그 의미

**지문해설** : 이 글은 생명체의 기초 대사량에 대한 개념과 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기초 대사량 측정 결과 분석을 통해 등장하게 된 개념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초 대사량은 생존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접법을 통해 측정하거나 간접법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기초 대사량에 대한 19세기의 초기 연구에서는 체표 면적이 (체중)<sup>0.67</sup>에 비례하므로 기초 대사량이 (체중)<sup>0.67</sup>에 비례한다고 보았다. 1930년대 클라이버는 L-그래프를 이용하여 체중의 증가율과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 간의 관계를 직선의 기울기로 나타내고, 최소 제곱법에 근거하여 기초 대사량이 (체중)<sup>0.75</sup>, 즉 대사 체중에 비례한다고 결론 지었는데, 이를 클라이버의 법칙이라고 한다. 대사 체중은 치료제의 허용량 결정에도 이용되고 있다.

**[주제]** 생명체의 기초 대사량 측정 방법과 그 의미

#### 14.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5문단에 따르면, L-그래프에서 X축에는 체중에 상용로그를 취한 값을, Y축에는 기초 대사량에 상용로그를 취한 값을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6문단에 따르면, L-그래프의 기울기에 체중의 증가율에 대한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반영되며,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을수록 기울기가 작아지고, 체중의 증가율과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같으면 직선의 기울기가 1이 된다. 즉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체중의 증가율에 대한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가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의 차이와 동일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9문단에서 클라이버는 기초 대사량이 대사 체중에 비례한다고 결론 지었으며 이를 ‘클라이버의 법칙’이라고 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1문단에서 기초 대사량은 근육량이 많을수록 증가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④ 8문단에서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관계를 대변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은 최소 제곱법으로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⑤ 7문단에서 생물의 어떤 형질이 체중 또는 몸 크기와 L-그래프에서 직선의 관계를 보이며 함께 증가하는 경우 그 형질은 ‘상대 성장’을 한다고 한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동일 종에서의 심장, 두뇌와 같은 신체 기관의 크기도 상대 성장을 따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동물의 신체 기관인 심장과 두뇌의 크기는 몸무게나 몸의 크기에 상대 성장을 하며 발달한다고 볼 수 있다.

## 15. 내용의 인과관계 파악

**정답해설 :** 코끼리에게 적용하는 치료제 허용량을 기준으로, 체중이 아니라 대사 체중에 비례하여 생쥐에게 적용할 허용량을 정하면 적정량을 결정할 수 있다. 코끼리의 체중을 100, 생쥐의 체중을 1로 가정할 때 코끼리의 대사 체중은  $100^{0.75}$ , 생쥐의 대사 체중은  $1^{0.75}$ 이므로 체중에 비례하여 정한 양은 대사 체중에 비례하여 정한 양보다 적다. 따라서 체중에 비례하여 허용량을 정하는 경우 적정량보다 적은 양을 먹이게 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기초 대사량은 개체에 따라 대사량의 60~75%를 차지한다고 하였으므로, 기초 대사량은 하루에 소모되는 총 열량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② 9문단에서 클라이버는 기초 대사량이 (체중) $^{0.75}$ 에 비례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문단에서 체표 면적은 (체중) $^{0.67}$ 에 비례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클라이버의 결론에 따르면, 기초 대사량은 동물의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 ③ 3문단에서 19세기의 초기 연구에서는 기초 대사량이 (체중) $^{0.67}$ 에 비례한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르면 체중이 2배 증가할 때 기초 대사량은  $2^{0.67}$ 인 약 1.6배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19세기 초기 연구자들은 체중의 증가율보다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⑤ 3문단의 내용을 통해 19세기의 초기 연구에서는 기초 대사량이 (체중) $^{0.67}$ 에 비례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또 9문단의 내용을 통해 클라이버는 기초 대사량이 (체중) $^{0.75}$ 에 비례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동물의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늘어나는 에너지의 필요량은 19세기 초기 연구에 비해 클라이버의 법칙을 따를 때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6.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공기의 출입량을 알고 있는 호흡실에서 동물이 발산하는 열량을 열량계를 이용해 측정하는 방법이므로, 일정한 체온에서 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을 구할 수 있다. 한편 ㉡은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1문단에서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은 일정한 체온에서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과 같다고 하였으므로, 결국 ㉡은 일정한 체온에서 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

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공기의 출입량을 알고 있는 호흡실에서 동물이 발산하는 열량을 열량계를 이용해 측정하는 방법이다. 환경 온도에 따라 체온을 조정하는 변온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을 적용할 때에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 환경에서 열량을 측정하기 때문에 변온 동물이라는 요소가 ㉠에 의한 열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② ㉡은 호흡 측정 장치를 이용해 동물의 산소 소비량과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은 동물이 호흡에 이용한 산소의 양을 알아야만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을 추정할 수 있다. ③ 1문단에서 기초 대사량은 생존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는 동물이 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열량으로 정의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과 ㉡ 모두 격한 움직임이 제한된 편하게 쉬는 상태에서 기초 대사량을 구한다. ⑤ 1문단에서 기초 대사량은 생존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는 동물이 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열량으로 정의된다고 하였다. 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열량이라고 하였으므로, 기초 대사량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기초 대사량을 구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 17.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6문단에 따르면, L-그래프의 X축에 표시된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Y축에 표시된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면 그래프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고 하였다. 그리고 체중의 증가율과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같다면 직선의 기울기는 1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보기>에서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면 가로축인 ㉠의 증가율이 세로축인 ㉡의 증가율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에 상용로그를 취한 값과 ㉡에 상용로그를 취한 값으로 만든 순서쌍이 직선을 나타내므로 ㉠과 ㉡는 지문의 5문단에 제시된 것처럼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한다. 따라서 ㉠에 ㉡가 비례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점들이 최적의 직선으로부터 가로축에 수직 방향으로 멀리 떨어진다는 것은 곧 편차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편차가 더 커지면 편차의 제곱 합도 더 커진다. ③ 5문단에 따르면,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 순서쌍을 나타낸 점들이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한다. 그러나 <보기>와 같은 L-그래프에서는 직선의 주변에 점들이 분포한다. ④ 6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L-그래프에서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으면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고, 둘의 증가율이 같으면 기울기가 1이 된다. 그러므로 ㉠의 증가율보다 ㉡의 증가율이 작다면, 점들 사이를 지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다고 할 수 있다. ⑤ 5문단에 따르면,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 그 둘의 증가율이 같을 때와 달리 순서쌍을 나타낸

점들은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한다. 둘의 증가율이 같다면 점들은 직선의 주변에 분포한다.

#### [18~21] 문학

#### [18-21] 고전소설 - 조위한, '최척전'

**지문해설** : 이 소설은 최척과 옥영의 만남과 결혼, 이별과 재회를 중심으로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가족이 서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과정을 그려낸 작품이다. 작품의 전반부는 최척과 옥영의 애정담을 다루었으며, 후반부는 가족의 이산과 재회를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은 전쟁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과 재회를 찡찡하게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는 임진왜란, 정유재란, 병자호란 등 전란이 거듭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았던 당대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주제]** 전란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과 재회

#### 18. 시점 및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어느 봄날 밤'의 풍경을 '어둠이 깊어 갈 무렵 미풍이 잠깐 일며 밝은 달이 환하게 비쳤으며, 바람에 날리던 꽃잎이 옷에 떨어져 그윽한 향기가 코끝에 스며들었다'고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이런 풍경 속에서 최척의 피리 소리를 듣던 옥영이 '절구 한 수'를 읊는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감각적인 배경 묘사로 시를 읊는 낭만적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어느 봄날 밤' 옥영이 최척의 피리 소리를 듣고 절구 한 수를 읊었는데, 이는 '맑은 정경'을 대한 자신의 감흥을 주체하지 못하고 시를 읊은 것이지 인물 간의 갈등에서 비롯한 일로 볼 수 없다. ② '둘은 서로 마주하고 놀라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고 백사장을 뒹굴었다.', '목이 메고 기가 막혀 마음을 안정할 수 없었으며, 말도 할 수 없었'던 부분에서 인물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나열된 장면이 있지만 신분의 변화 과정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최척과 옥영의 결혼을 '친척들'이 축하해주었으며, 정성을 다해 가족 구성원들을 대했던 옥영에 대해 '이웃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을 뿐이지 옥영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최척은 전란으로 가족과 이별해 명나라 배를 타고 안남에 이르렀다. 안남에서 옥영과 재회한 최척은 전란에서 헤어진 아버지와 장모님의 안위를 묻지만 옥영은 두 분의 안위를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란이라는 이전 사건에 따른 다른 인물들의 현재 행선지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없다.

#### 19.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해설 :** 최척은 ‘어느 봄날 밤’ 자신의 피리 소리를 듣던 옥영이 읊은 절구 한 수를 들으며 ‘애초에 자기 아내가 이리 시를 잘 읊는 줄 모르고 있던 터라 놀라 감탄하’고 있다. 따라서 최척이 옥영의 시에 대한 재능을 결혼 전에 알고 있지 않았으며, 옥영이 시를 읊기 전까지 이를 모른 척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양국의 뱃사람들은 최척과 옥영이 처음에는 친척이나 잘 아는 친구인 줄로만 알았다가 뒤에 그들이 부부 사이라는 것을 알고는 ‘이런 일은 옛날에도 들어보지 못하였다’며 놀라고 있다. ② 최척은 강둑을 내려가 일본인 배에 이르러 어젯밤 시를 읊던 사람이 조선 사람이 아니냐고 물으며, 자신을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처지를 밝힌 후에 ‘고국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찌 그저 기쁘기만 한 일이겠’냐고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며 그 조선 사람을 만나기를 청하고 있다. ④ 시집에 온 옥영은 ‘시아버지를 봉양하고 남편을 대할 때 효와 정성을 다하고, 윗사람을 받들고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성의와 예의를 두루 갖추’었으므로 그녀가 가정의 구성원들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대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척은 ‘결혼 후 구하는 것이 뜻대로 되어 재산이 점차 넉넉히 불었’다고 하였으므로 옥영이 시집온 후 최척의 집안이 점차 부유해졌다고 할 수 있다. ⑤ 혼례를 마친 후 대청에 오른 최척과 옥영을 ‘친척들이 축하하여 온 집안에 기쁨이 넘쳤’다고 하였으므로 친척들이 최척의 결혼을 경사로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성을 다해 가족 구성원들을 대하는 옥영을 향해 이웃 사람들이 ‘양홍의 처나 포선의 아내도 이보다 낫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이웃 사람들이 옥영의 행실을 칭찬하였다고 할 수 있다.

## 20. 사건의 전개 양상 파악

**정답해설 :** ㉠에 최척은 아내 곁에서 피리를 불곤 했다고 하였으므로 ㉠은 인물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의 표지라 할 수 있고, ㉡은 그런 날들 중의 하나로 옥영이 절구 한 수를 읊은 때이므로 ㉡은 ㉠ 중 한 시점을 특징하는 시간의 표지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은 후사에 대한 염려로 최척 부부가 만복사에 올라 부처께 기도를 올리는 날이므로 인물의 심리적 갈등이 발생하는 시간의 표지로 볼 수 없다. ㉠에 옥영은 아이를 잉태하여 후사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므로 ㉡에서 발생한 갈등이 심화되는 시간의 표지로 볼 수 없다. ② ㉠에 옥영은 아이를 잉태하여 후사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났으므로 인물이 심리적 갈등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에 옥영은 최척의 피리 소리에 절구 한 수를 읊었으며, 최척은 이런 옥영의 시 읊는 실력에 놀라 감탄하고 있다. 따라서 ㉠과 ㉡은 과거의 행위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 변화되었음을 드러내는 시간의 표지로 볼 수 없다. ④ ㉡은 최척 부부가 만복사에 올라 부처께 기도를 올렸던 ㉡ 중 하루에 해당하는 시간의 표지에 해당한다. 한편 ㉠은 최척이 자신의 피리 소리에 절구 한 수를 읊는 옥영에 감탄한 날이므로 ㉡에 행해지던

행위가 완결된 순간을 지시하는 시간의 표지로 볼 수 없다. ⑤ ㉠에 행해지던 행위가 ㉠을 거쳐 ㉡에 이르러 그 결실을 보아 자식을 잉태해 아들을 낳았으므로 ㉠과 ㉡은 인물의 소망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에 포함되는 시간의 표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은 최척이 자신의 피리 소리에 절구 한 수를 읊는 옥영에 감탄한 날이므로 ㉡을 인물의 소망이 좌절된 시간의 표지라고 볼 수 없다.

## 2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최척과 옥영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공간에서 의외의 만남을 하고 있다.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둘은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았으며, 헤어져 있는 동안 쌓아 두었던 감정이 폭발쳐 올라 ‘눈물이 다하자 피가 흘러내’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는 재회의 기쁨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강조한 과장된 표현으로 ‘눈물이 다하자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또 다른 문제 확인에 따른 인물의 불안감과 관련이 있다고 본 감상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최척과 옥영은 결혼한 후 자식이 없는 것을 걱정하여 만복사에 올라 정성을 다해 부처께 기도를 올렸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 옥영의 꿈에 나타난 장육금불은 본인을 ‘만복사의 부처’라고 하며 사내아이를 점지해 주고 있다. 이후 최척과 옥영 사이에서는 아들이 태어났으므로 옥영의 꿈에 나타난 ‘만복사의 부처’는 옥영이 아들을 갖는 데 도움을 주는 신이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② 옥영의 꿈에 나타난 장육금불은 옥영에게 사내아이를 점지해 주면서 그 사내아이에게 특이한 징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옥영이 낳은 아들의 등에 어린아이 손바닥만 한 ‘붉은 점’이 있었다. 따라서 ‘붉은 점’은 장육금불이 예언한 대로 ‘사내아이’가 태어났음을 보여 주는 특이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③ 최척은 명나라 배를 타고 안남(오늘날의 베트남)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어젯밤 시를 읊던 사람을 찾아 ‘일본인 배에 이르러 조선말로’ 그 사람이 조선 사람인지 물어보고 그 사람을 만나고자 한다. 그가 다른 나라에서 ‘고국 사람을 만나’려 하는 것은 공간적 배경이 조선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나라로까지 확장되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④ 옥영은 어젯밤 ‘피리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남편인 최척을 떠올리며 감회에 젖어 절로 시를 읊게 되었다. 최척이 어젯밤 시를 읊던 사람을 찾으러 일본인 배에 왔고, 서로 헤어졌던 두 사람이 비로소 만나게 되었으므로 ‘피리 소리’는 이별 상황이라는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22~26] 문학

[22-26] 갈래 복합 - (가) 이항, ‘도산십이곡’ / (나) 김득연, ‘지수정가’ / (다) 김훈, ‘검재의 빛’

**지문해설 :** (가)는 이황이 만년에 은퇴하면서 안동에 도산 서원을 세우고 후진을 양성하며 지은 총 12수의 연시조이다. 전 6곡 ‘언지’에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뜻이 도의 완성을 지향하는 데 있음이 드러나 있고, 후 6곡 ‘언학’에는 학문의 즐거움과 학문에 정진하는 삶의 자세가 나타나 있다. (가)의 <제1수>, <제2수>, <제6수>는 모두 전 6곡 ‘언지’에 속하는 부분으로, 자연과 더불어 사는 화자의 감흥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주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와 학문 수양의 길

**지문해설 :** (나)는 조선 중기의 문인 김득연이 지수정과 그 주변의 자연 풍광에 대해 노래한 가사이다. 와룡산을 배경으로 하여 자신이 직접 세운 정자인 지수정과 이를 둘러싼 자연물의 아름다움, 사계절의 흐름을 배경으로 자연을 벗삼고 풍월을 읊조리는 삶에 대한 만족감과 도학자로서의 결의가 주된 내용으로 전개된다. 작가는 지수정을 자연 자체이자 이상적 삶의 공간으로 제시하여 조화롭고 아름다운 자연에서의 삶을 지향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주제]** 지수정을 짓고 자연에 거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

**지문해설 :** (다)는 조선 시대의 화가 겸재 정선이 그림의 소재로 삼았던 동해안의 승경을 찾아다니며 겸재의 그림에 담긴 의미를 반추한 내용을 서술한 수필이다. (다)에서 글쓴이는 옛 망양정 터를 찾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의 풍경과 그림 속의 풍경 간의 괴리를 간파하고, 이는 겸재 그림의 사실성이 물리적 거리감에 근거하는 대신 세계를 관찰하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주제]** 겸재의 그림에 나타난 원근과 사실성의 의미

## 22.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는 조화로운 자연의 모습에 주목하여 이를 지향하고자 하는 자세가 드러나 있다. (나)에는 아름다운 자연 풍광의 한가운데 자신의 거처를 정함으로써 자연에 합일하고자 하는 화자의 자세가 드러나 있다. (다)의 글쓴이는 겸재의 그림에서 발견되는 사실성이 인간과의 밀접한 관련성에 근거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를 드러낸 화가의 시선에 공감하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 (나), (다) 모두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하거나 좌절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③ (가), (나), (다) 모두 현실을 통찰하며 관용적 삶에 대한 지향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볼 수 없다. (가)와 (나)의 자연 공간은 이상화되어 제시되었으며, (다)에서는 현실에 대한 통찰보다는 현실 공간이 화폭에 담기는 과정에서 변형되는 이유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④ (가)의 <제6수>에서는 계절감을 활용하여 자연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나, (나)와 (다)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찾을 수 없



다. ⑤ (가), (나), (다) 모두 가상의 상황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환상적 분위기가 드러나지도 않는다.

### 23.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A]의 ‘허물이나 없고자’는 화자가 자연을 벗삼아 들어가는 과정에서 장차 바라는 바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래에 대한 화자의 바람을 보여준다. [B]의 ‘티 없어’는 산의 모습을 비춘 ‘작은 연못’을 보고 이를 ‘맑은 거울’로 비유한 화자의 평가이다. 따라서 ‘티 없어’를 대상을 관찰하기 전에 나타난 화자의 심리를 표현한 구절로 설명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의 <제1수> 초장은 ‘이런들’과 ‘저런들’, ‘어떠하며’와 ‘어떠하료’ 등 유사한 어휘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다. ② [A]의 <제1수> 종장에서는 천석고황, 즉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몹시 사랑하고 즐기는 성벽을 고쳐 무엇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자연 친화적인 모습을 드러내었으며, 이러한 모습은 자연물에 둘러싸인 모습을 묘사한 [A]의 <제2수> 초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③ [B]에서는 ‘산 그림자’가 담긴 ‘작은 연못’을 티 없는 ‘맑은 거울’에 비유하여 깨끗한 자연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④ [A]에서 ‘연하’와 ‘풍월’은 각각 ‘집을 삼고’와 ‘벗을 삼아’의 대상으로 제시되어 이들과 화자의 가까운 관계를 드러내었으며, [B]의 ‘활수’는 ‘끌어 들여’ ‘머물게 하’는 대상으로 제시되어 이를 가까이 끌어들여, 가는 것을 멈추고 머물게 하고자 하는 화자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 24. 작품 간 비교 감상

**정답해설 :** (나)의 화자는 스스로 지은 정자를 ‘무릉도원’이라 칭하여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이상적 자연의 모습을 발견하였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무릉도원’이 현실적 공간을 이상적 공간으로 바라보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반면 (가)의 화자가 ‘천석고황’을 고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연에 처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로 보아 화자는 자신이 처한 자연 공간을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가 일치된 이상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천석고황’을 이상적 공간에 다다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 의하면 (가)의 강호는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가 일치된 이상적 공간이다. ‘초야우생’은 ‘초야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의 뜻으로, 자연에 거하여 이를 지향하는 화자 자신을 가리킨다. ② (나)의 ‘내 혼자 알았노라’는 오랫동안 아무도 몰랐던 ‘황무지’의 ‘진면목’을, 즉 자연의 가치를 하루아침에 알아차린 화자의 심정을 드러낸 말이다. ④ (가)에서는 ‘사시 가흥’을 ‘사람과 한가지라’라 표현하여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가 다르지 않다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나)의 ‘가지가지 다 좋구나’는 이어지는 ‘백석’, ‘벽류’, ‘첩첩한 산들’, ‘뽕뽕한 소나무’ 등 지수정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에서 확인되는 자연의 가치에 대한 화자의 감탄을 드러낸 것이다. ⑤ (가)의 ‘춘풍에 화만산하고 추야에 월만대라’는 꽃이 만발한 봄과 달빛 가득한 가을밤의 모습을 제시하여 조화로운 자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벽류는 팔팔 흘러 옥 술잔을 때리는 듯’은 맑고 푸른 물이 힘차게 흐르는 모습을 비유한 것으로, 자연의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화자가 발견한 자연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 25. 작품 간 비교 감상

**정답해설 :** (나)의 ‘작은 정자’는 ‘남양의 제갈려’, ‘무이의 와룡암’과 같은 옛 현인이 은거한 거처를 떠올리게 하는 동시에 ‘필궤 위언의 그림의 것’이자 ‘무릉도원’과 같은 이상적 공간으로 인식되는 곳이다. 따라서 ㉠은 화자에게 만족하며 머무르는 삶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장소라 할 수 있다. (다)의 ‘옛 망양정 자리’에서 글쓴이는 ‘옛 정자가 이미 오래전에 없어져 버린 그 허전한 사태’가 ‘그다지 허전하지 않았다’고 하며 그 이유를 자문자답하고 있다. 따라서 ㉡은 글쓴이에게 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장소라 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은 화자가 스스로 세운 정자이므로 ‘노력을 기울여 만든 인공물’로 볼 수 있지만, ㉡은 글쓴이가 겸재의 화폭에 등장한 공간을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방문하게 된 곳이므로 이를 ‘글쓴이가 의도하지 않게 찾아낸 장소’라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과 결부하여 ‘현실에서 명예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표현한 내용을 (나)에서 찾을 수 없지만, ㉡은 ‘도로 공사로 단애의 허리가 잘리워 나가’를 보아 현실에서 편의를 실현한 결과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④ ㉠은 화자가 자신이 자연에서 거할 공간으로 세운 것이므로 ‘일상적인 유용성을 상실한 공간’이라 하기 어렵다. ㉡은 실제로 ‘망양정’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본래적인 유용성을 상실한 공간일 수 있으나, 글쓴이는 ㉡에 대해 ‘그다지 허전하지 않았다’고 반응하면서 자신이 발견한 겸재 그림의 의미를 진술하고 있다. ⑤ (나)의 화자가 ㉠을 통해 ‘자신의 삶을 가다듬’게 되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다)의 글쓴이 역시 ㉡을 통해 자신의 삶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 2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C]에서 ‘인간과 인간에 직접 관련된 것들’이 띠고 있는 ‘비교적 명료한 사실성’은 ‘원근에 의해 정립되는 사실성이 아니라, 세계를 관찰하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되는 사실성’이라고 하였다. ‘풍경의 원근감을 보이는 그대로 실현’하는 것은 <보기>의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것’에 상응하는 것인데, 이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한 것이 겸재의 그림이라는 점에서 이는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먼 산을 그릴 때’ 겸재가 그리는 것은 ‘그 산과 인간 사이의 거리’가 아닌 ‘그 거리를 들여다보는 시선의 깊이’라고 하였다. 이는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보기>의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② <보기>에 의하면 겸재는 산을 그리면서도 자신이 생각한 구도로 풍경을 재구성하였다고 했으며, 모든 대상이 화가의 시선에 의해 재구성되어 회화의 구도상 의미를 지닌 자리에 놓일 때야말로 진정한 그림의 요체가 드러난다고 하였다. [C]에서 ‘그 거리를 들여다보는 시선의 깊이를 그린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반영한 구절로 볼 수 있다. ③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성을 부여받지 않’는 것은 가까이 있는 대상들 역시 화가의 시선에 의해 재구성되어 빠거나 과장될 수 있다는 <보기>의 설명과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보기>에 의하면 모든 대상이 화가의 시선에 의해 재구성될 때 진정한 그림의 요체가 드러난다고 하였다. [C]의 ‘세계를 관찰하는 인간’은 화가를 지칭하는 것으로 화가와 세계의 관계 속에서 사실성이 정립된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드러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27~30] 문학

#### [27-30] 현대소설 - 최명희, ‘쓰러지는 빛’

**지문해설** : 이 작품은 거주의 공간으로 ‘집’이 가진 의미를 깊이 있게 고찰하고 있다. 서술자인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을 한 후 터를 잡고 살던, 그래서 ‘나’의 유년 시절과 현재 시점까지의 삶이 오롯이 녹아 있는 천변의 집을 떠나 새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천변의 집은 주위에 산과 시냇물이 있으며 앞마당에는 커다란 오동나무가 자라고 있는 곳, 그리고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는 반면, 새로 이사를 갈 집은 변화한 도로변에 있어 도시의 온갖 소음이 들려오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주의 공간, 공동체적 삶의 공간으로서 집의 의미를 복원하고자 하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가족의 추억이 서려 있는 집에 대한 회고

#### 27.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영익은 이사 날짜가 결정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떨쳐버리더니 “내가…….”라고 말할 뿐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다. 이는 이사를 가야 하는 가족의 상황을 알고서도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사흘 됐나? 그저께 아니었어요?”라는 말을 통해 영익이 이삼일 전 집에 다녀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들이 출가하여 소식이 끊겼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어머니는 아들이 언제 다녀갔는지를 물어볼 뿐 아들의 근황을 궁금해

하고 있지 않다. ③ ‘나’는 동생의 말을 듣고 그가 현재 어디에 머무르는지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말을 듣고, 동생이 현재 머무르고 있는 기린봉 중턱에 있는 절이 ‘나’가 가리킨 동편 산마루의 깎박이는 불빛의 승암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④ 시장 안의 가게들은 밤이 깊어지면 하나씩 문을 닫는다고 서술되어 있으므로 밤늦게 물건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천변은 ‘삼십 년 전 그때만 하여도, 부성 밖의 한적하고 빈한한 동네였을 것’이라 말하고 있으므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할 때부터 사람들이 북적였던 변화한 동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28.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E]에서 “사흘 됐나? 그저께 아니었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서술자인 ‘나’이다. 따라서 대화 상황에서 말하는 이와 서술자는 모두 ‘나’이므로 말하는 이와 서술자가 다르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서술자는 ‘이만큼에 서서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 사이로 바라보면, 리어카마다 켜져 있는 카바이드 불빛’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대상을 지각할 수 있는 위치에서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벽오동집 아주머니’와 ‘오동나무 아주머니’는 모두 자신의 어머니를 호명하는 말로 이를 각각 하나의 문단에 서술하고 있다. 이는 호칭의 대상이 되는 어머니가 두드러져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낸다고 할 수 있다. ③ 일인칭 대명사 ‘나’와 ‘우리’를 사용함으로써 서술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래서 나는 속으로 우리 동네를 벽오동촌이라고 별명 지었다. 그것은 어쩌면 이 가난한 동네의 한 호사였는지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내면을 드러낸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이 자리를 잡은 곳인 천변에 대해 ‘삼십 년 전 그때만 하여도, 부성 밖의 한적하고 빈한한 동네였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동네였을 것이다.’는 추측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서술이므로 서술자가 동네의 과거 상황에 대해 확정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9.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오동나무는 유월이면 아련한 유백색의 비단 무늬 같은 꽃을 피웠으며, 이른 봄이면 어린아이 손바닥만 하던 잎사귀가 어느 곁에 손수건만 해지고, 초여름에는 부채처럼 나부끼며, 가을에는 종이우산만큼이나 넓어진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나’가 계절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느끼게 되는 경험적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오동나무는 서술자인 ‘나’보다 나이가 많았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세월의 흐름을 느끼게 되는 경험적 대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오동나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경제적인 호사를 누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③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던 해, 지팡이만 한 나무를 구해다가 앞마당에 심으시며 “기념”이라고 웃으셨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오동나무를 심은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나’는 마음속으로 자신의 동네를 벽오동촌이라고 별명을 지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마을의 특징에 부합하는 별명을 지은 것은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서술자인 ‘나’이다. ⑤ 오동나무는 내가 태어난 해 아버지가 기념으로 심은 것이므로 자식을 얻은 기쁨으로 인해 심은 나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나무는 앞마당에 심은 것이므로 마을 곳곳에 심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마을 곳곳에 오동나무가 자라게 된 것은 서술자의 집에서 날아간 오동나무 씨앗이 마을 곳곳에 떨어지면서 저절로 자라나게 된 것이다.

### 3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나’는 ‘구조’가 ‘천박’한 집의 여건을 살펴보기는 하지만 이것이 ‘집을 고치’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서술자인 ‘나’는 새로 이사 갈 집에 대해 부정적 심리를 보이고 있을 뿐 거주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여 낯선 공간에 친숙해지고자 하는 생각을 보여 주고 있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나’는 ‘천변’ 집에 살면서 이웃들과, 그리고 집 앞마당에 자라는 오동나무와 함께 한 시간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나’가 천변에서 보낸 시간들은 이사할 처지에 놓인 현재의 상황을 불편하게 여기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③ ‘서걱거리는 소리’는 앞마당에 있는 오동나무의 무성한 잎사귀에 의해 만들어지는 소리이고, ‘불규칙한 마찰음’은 새로 이사를 간 집 주변에서 나는 소리이다. 오동나무 잎사귀가 하늘을 뒤덮는 앞마당이라는 환경에 대해서 ‘나’는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불규칙한 마찰음’이 들려오는 곳은 ‘환락과 유행과 흥정의 경박한 거리’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친밀감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창문’을 ‘막아 버린’ 방은 ‘채광 통풍조차’ 되지 않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다. 채광이나 통풍은 주거의 공간이 갖추어야 할 요소라고 볼 때 ‘나’는 새로 이사 갈 집에 대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느끼는 애착과는 다른 정서적 반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잘못 날아든 참새들 같’다는 것은 새로 이사 갈 집에 대해 서술자가 느끼는 부정적 심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서술자인 ‘나’가 변화될 거주 여건을 낯설게 느끼는 심리를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31-34] 현대시 - (가) 유치환, '채전(菜田)' / (나) 나희덕, '음지의 꽃'

**지문해설 :** (가)의 채전은 가지, 고추, 오이, 토란, 박, 호박 등의 채소들이 '제각기 타고난 바탕과 생김새로' 자라고 영어 '목숨의 유열과 천지와의 화합'이 있는 공간이다. 또한 나비, 풍뎡이, 잠자리, 바람, 그늘, 비, 햇볕 등의 '극진한 축복과 은혜' 속에 채소들이 '지극히 충족한 빛나는 생명의 양상'을 이루는 공간이다. 이처럼 화자는 생명체들이 조화를 이루며 영어 가는 한여름의 채전을 감각적으로 그림으로써, 만물의 조화로운 성장과 충만한 생명력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묘사를 통해 타고난 대로,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자족적 태도를 이끌어 내고, 이러한 채전을 직접 보고 경험해 볼 것을 권장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제]** 생명체의 조화로운 성장과 자족하는 태도

**지문해설 :** (나)는 인간에 의한 생명 파괴를 고발하고 자연의 강인한 생명력을 노래한 작품이다. '벌목의 슬픔', '패역의 골짜기' 등에서 인간에 의한 자연 파괴 행위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썩은 참나무의 상처에서 피어나는 '버섯'을 통해 생명의 강인함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 '음지'는 참나무가 썩어 가는 '패역의 골짜기'와 비교해 볼 수 있다. '패역의 골짜기'가 상처와 고통으로 황폐화된 현실이라면 '음지' 역시 그러한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그 '음지'에서 황홀하게 피어나는 '꽃'이 바로 '버섯'이므로 이 작품은 황폐화된 현실이 강인한 생명이 피어나는 공간으로 바뀌는 순간을 그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 인간에 의한 자연의 황폐화와 자연의 강인한 생명력

3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의 중심 제재는 '한여름'의 '채전'이라 할 수 있다. 그곳은 '황금의 햇빛' 속에서 가지, 고추, 오이, 토란, 박, 호박 등의 채소들이 '제각기 타고난 바탕과 생김새로' 자라고 영어 '주어진 대로를 정성껏 충만시'키는, '목숨의 유열과 천지와의 화합'이 있는 공간이다. 또한 나비, 풍뎡이, 잠자리, 바람, 그늘, 비, 햇볕 등의 '극진한 축복과 은혜' 속에 채소들이 '지극히 충족한 빛나는 생명의 양상'을 보여 주는 곳이다. 한편 작품의 제목에서 보듯이 (나)의 중심 제재는 '버섯'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벌목의 슬픔'으로 서서 '썩어 가는 참나무 떼'의 '몸에 뚫렸던 상처'에서 피어난다. 그것은 '소나기처럼 후드득 피어나' 서서히 썩어 가는 참나무의 고통과 상처를 멈추게 하기에 화자는 '버섯'을 '음지의 꽃'으로 부른다. 따라서 (가)와 (나)는 모두 사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화자가 중심 제재에 대해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의 '제각기 타고난 바탕과 생김새로', '주어진 대로를 정성껏 충만

시킴으로써 스스로를 족할 줄 알라' 등에서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으로 볼 수는 있으나, 화자는 채소들의 이러한 모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나)의 '썩어가는 참나무 떼'는 '벌목의 슬픔'으로 서서 썩어 간다. 그렇지만 그들의 상처에서 버섯이 피어나므로,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이나 비관적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③ (가)는 한여름의 '채전'을 통해 만물의 조화와 충만한 생명력을 보여 주고 있으며, (나)는 생명의 파괴와 그로 인한 썩음, 상처, 고통을 딛고 일어나는 생명의 강인함을 '버섯'을 통해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중심 제재의 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는 관조적 시선을 취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나)의 '벌목의 슬픔', '패역의 골짜기' 등에서 인간의 행위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읽어낼 수 있기에 우호적 관점을 토대로 중심 제재의 심미적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나)의 '벌목의 슬픔으로 서 있는 이 땅', '패역의 골짜기' 등에는 장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의 '채전'은 긍정적 인식과 예찬적 태도가 담겨 있는 장소라 할 수 있다.

### 32.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시상의 흐름으로 보아 (가)의 '많은 손님들'은 나비, 풍뎅이, 잠자리, 바람, 그늘, 비, 햇볕 등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이들 사물을 인격화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 '손님들'은 '채전'의 '지극히 범속한 것들'이 '목숨의 유열과 천지와의 화합', '빛나는 생명의 양상'을 이루는 데에 '극진한 축복과 은혜'를 주는 존재들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의 1연과 2연은 모두 '한여름 채전으로 가 보아라'로 시작하고 있다. 여기서 '가 보아라'가 반복되고 있다. 2연의 마지막 행은 '한여름 채전으로 와서 보아라'로 끝난다. 여기에서 '가 보아라'는 '와서 보아라'로 변주되고 있다. 이러한 반복과 변주를 통해 '한여름'의 '채전'에서 겪을 수 있는 경험의 소중함, '목숨의 유열과 천지와의 화합'과 '지극히 충족한 빛나는 생명의 양상'을 경험하는 소중함을 느끼게 하려는 화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② (가)에서 '지극히'는 '범속한 것들' 앞에서 반복되고 있으며 '충족한 빛나는 생명의 양상' 앞에서도 수식어로 반복되고 있다. 이는 한여름 채전의 채소들에서 느끼는 화자의 충족한 느낌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과분하지 말라'는 부정 명령형 '말라'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 명령형은 '주어진 대로', '스스로를 족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⑤ '빛나는 생명의 양상'은 '생명의 양상'이라는 관념을 시각화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목숨의 유열과 천지와의 화합'이 이루어진 '채전'의 '지극히 범속한 것들'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 33. 시구의 비교와 대조

**정답해설 :** [B]에서 보듯이 '우리'가 함께 썩어 갈수록 '바람'은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흔든다. 그 '바람'은 [C]에서 보듯이 '잠자던 흙씨들'을 일어나게 하고, 이러한



‘흙씨들’의 일어남은 ‘우리 몸에 뚫렸던 상처마다’ ‘버섯’이 피어남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B]에서 참나무의 상태에 변화를 가져온 움직임은, [C]에서 버섯이 피어나는 상황과 순차적 관계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순환’은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과정을 의미하기에 [A]에서 참나무가 벌목으로 썩어 가는 모습, [B]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의 모습과 순환적 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없다. ③ [C]에서는 참나무의 상처에서 생명이 생성되는 순간을 말하고 있고, [D]에서는 그로 인해 나무의 고통이 멈추게 됨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명 생성의 순간과 고통이 멈추는 과정을 대립적 관계로 볼 수 없다. ④ [D]에서는 버섯의 피어남으로 인해 참나무의 고통이 멈추게 됨을 말하고 있다. [E]에서 낙엽은 산비탈을 구르고, 바람은 골짜기를 떠돈다. 그러므로 참나무 모습에 일어난 변화와, 낙엽이나 바람이 처한 상황을 인과적 관계로 설명할 수 없다. ⑤ [E]에서 참나무 주변에 존재하는 낙엽, 바람 등은 [F]에서 나무를 채워 주는 존재로 제시된 대상 즉 ‘버섯’과 동질적 존재가 아니다.

#### 34.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해설 : ‘넉출’은 길게 뻗어 나가 늘어진 식물의 줄기로 (가)에서 ‘넉출’은 채전 울타리에 덩굴을 이뤄 자라는 작은 박과 호박을 감각적으로 묘사하는 구절의 일부이다. 이 ‘넉출’은 어우러진 생명체와는 관련이 있지만 현실의 삶에 자족하게 되는 계기와 바로 연결하기는 어렵다. (나)의 ‘흙씨’는 참나무 몸에 뚫렸던 상처에서 피어나는 버섯의 흙씨이다. 그러므로 썩어 가는 참나무의 몸에서 피어나는 버섯은 <보기>에서 말한 생명체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는 ‘한여름’을 시간적 배경으로 ‘채전’에서 자라고 영글어 가는 생명체들의 풍요로움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나)는 ‘벌목’으로 썩어 가는 ‘참나무 때’가 ‘겨울’을 나는 장면으로 시작하여, 참나무 상처에서 ‘버섯’이 피어나는 순간을 그리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겨울’은 생명 파괴의 현실과 아울러 그 현실을 이겨내는 시간적 배경이라 할 수 있다. ② <보기>에서처럼 (가)가 만물의 조화로운 성장과 충만한 생명력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라면 (가)의 ‘채전’은 ‘지극히 범속한 것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공간이고, ‘울타리’는 그 경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나)의 ‘패역의 골짜기’는 벌목된 참나무들이 슬픔으로 서 있는 공간이다. <보기>에 따르면 이 공간은 ‘벌목’으로 표현된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장소로 해석할 수 있다. ④ (가)에서 ‘그늘’은 나비, 풍덩이, 잠자리, 바람, 비, 햇볕 등과 함께 만물의 조화로운 성장을 이루어 가는 하나의 배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의 ‘음지’는 참나무가 썩어 가는 ‘패역의 골짜기’와 비교해 볼 수 있다. <보기>에 따르면 ‘패역의 골짜기’는 상처와 고통으로 황폐화된 현실로 해석할 수 있다. ‘음지’ 역시 그러한 공간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음지’에서 황홀하게 피어나는 ‘꽃’이 ‘버섯’이다. 그러므로 ‘음지’

---

에서는, 황폐화된 현실이 강인한 생명력이 피어나는 공간으로 바뀌는 변화를 찾을 수 있다. ⑤ (가)의 ‘비’는 나비, 풍덩이, 잠자리, 바람, 그늘, 햇볕 등과 함께 생명의 충만함과 조화로움을 갖게 하는 표상으로 볼 수 있다. (나)의 ‘소나기’는 ‘서서히’ 썩어가는 참나무들과 대비되어 ‘후드득’ 피어나는 버섯의 의미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황폐화된 현실에 생명력을 환기하는 대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선택: 언어와 매체]

35. ② 36. ④ 37. ① 38. ④ 39. ① 40. ② 41. ① 42. ③ 43. ⑤ 44. ④  
45. ③

[35~36] 언어

[35~36] 합성 명사의 내부 구조

**지문해설** : 이 글은 합성 명사의 구성 요소인 어근들이 지니는 구조적, 의미적 특성을 다양한 예시를 통해 설명한 글이다. 1문단에서는 ‘갈비찜’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합성 명사를 형태소 단위까지 세밀하게 분석하면 그 내부 구조를 확인할 수 있음을 예시하고 있다. 2문단에서는 합성 명사를 이루는 어근들이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설명하고, 특히 특정 단어가 자립적으로 쓰일 때에는 중심적 의미만 지니다가 그 단어가 합성 명사의 어근으로 쓰일 때에는 새로운 주변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3문단에서는 합성 명사의 어근이 합성 명사 내부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위치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꿀잠’, ‘구름바다’의 사례를 통해 일부 어근들은 합성 명사 내부에서의 위치가 어느 정도 고정되는 경향성을 지닌다는 점도 제시하고 있다.

[주제] 합성 명사의 구조적, 의미적 특성

35. 단어의 구성 요소

**정답해설** : ㉠과 ㉡를 형태소 단위까지 분석하면, 각각 ‘(집+안)+(싸우--+ㅁ)’과 ‘(논+밭)+(갈--+이)’로 분석되어 ‘(어근+어근)+(어근+접사)’의 내부 구조가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는 ‘새우+(볶--+음)’으로 분석되고, ㉣는 ‘[탈+(추--+ㅁ)]+(놀--+이)’로 분석되기 때문에 ㉠, ㉡와 내부 구조가 동일하지 않다.

정답 ②

36. 단어의 구성 요소

**정답해설** : ‘입꼬리’와 ‘도끼눈’에서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은 각각 ‘꼬리’와 ‘도끼’로, 그 위치가 서로 다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칼잠’과 ‘구름바다’에서 중심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은 각각 ‘잠’과 ‘구름’으로, 그 위치가 다르다. ② ‘머리글’과 ‘물벼락’에서 중심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은 각각 ‘글’과 ‘물’로, 그 위치가 다르다. ③ ‘일벌레’와 ‘벼락공부’에서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은 각각 ‘벌레’와 ‘벼락’으로, 그 위치가 다르다. ⑤ ‘꼬마전구’와 ‘꿀잠’에서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은 각각 ‘꼬마’와 ‘꿀’로, 그 위치가 같다.

### 37. 한글의 창제

정답해설 : ‘분, 뻥, 흙’ 외에 ‘스그불’에서도 중성 글자 ‘ㄹ’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⑥는 ㅂ 순경음의 표기에 대한 내용으로, ‘사빔, 스그불’에서 ‘빙’을 확인할 수 있다. ③ ⑦은 초성과 중성 자리에 쓰이는 병서에 대한 내용으로, ‘뽕니, 뻥, 흙’에서 각각 ‘ㅍ, ㅂ, ㄹ’을 확인할 수 있다. ④ ⑧은 초성 글자 아래에 쓰이는 중성 글자에 대한 내용으로, ‘분, 스그불, 흙’에서 ‘ㄴ, ㅡ, ㆍ’를 확인할 수 있다.

⑤ ⑨는 초성 글자 오른쪽에 쓰이는 중성 글자에 대한 내용으로, ‘뽕니, 사빔, 뻥’에서 ‘ㅣ, ㅏ’를 확인할 수 있다.

### 38. 표준어 규정의 주요 내용

정답해설 : ㉔의 ‘안겨라’는 ‘안- + -기- + -어라’로 분석되는데, 이때의 ‘-기-’는 파·사동 접사이다. 즉, 용언 어간에 파·사동 접사가 결합한 경우이기 때문에 ‘ㄱ’이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는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㉔의 ‘푼다’는 용언 어간에 종결 어미 ‘-ㄴ다’가 결합한 경우로, ‘ㄴ’과 ‘ㄷ’이 모두 어미에 속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② ㉕의 ‘여름도’는 체언 ‘여름’과 조사 ‘도’가 결합한 경우이기 때문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③ ㉖의 ‘잠가’는 ‘잠그- + -아’로 분석되는데, ‘ㄹ’과 ‘ㄱ’이 모두 ‘잠그-’라는 하나의 형태소 안에 속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⑤ ㉗의 ‘큰지’는 용언 어간에 어미 ‘-ㄴ지’가 결합한 경우로, ‘ㄴ’과 ‘ㅈ’이 모두 어미에 속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 39. 문장의 짜임

정답해설 : ㉑의 관형사절 ‘내 친구가 보낸’에는 ‘누군가에게 혹은 어디에’ 정도의 필수적 부사어가 생략되어 있고, ㉒의 명사절 ‘테니스 배우기’에는 ‘내가’ 정도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㉑의 명사절은 ‘를’과 결합하여 목적어 기능을 한다. ③ ㉑의 명사절만 ‘받다’의 주체인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㉒의 안긴문장은 관형사절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은’이며, 주어가 생략되지 않았다. ④ ㉒의 안긴문장은 전체 문장에서 관형어 기능을 하며, ㉓의 안긴문장 ‘신이 닳도록’은 전체 문장에서 부사어 기능을 한다. ㉓에서의 보어는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은 식당이’이다. ⑤ ㉒의 관형사절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은’에는 목적어가 생략되지 않았으며, ㉓의 관형사절 ‘아름다운’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 [40~43] 매체

#### 40.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성

**정답해설 :** (가)에서는 누리집의 특정 페이지에서 제공한 정보가 충분한지에 대한 만족도 표시 기능을 활용하여 정보의 충분성에 대한 누리집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에 대한 만족도 표시 기능을 활용하여 지역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댓글 등록’ 기능을 활용하여 누리집 이용자가 제공된 정보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담당자의 답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누리집 하단에 ‘민원 서비스 메뉴’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증명서 발급’과 ‘주요 행정 서식’을 선택하여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④ 누리집 상단에 ‘우리 곁에 살아 숨 쉬는 자연, ○○군’이라는 홍보 문구와 함께 ○○군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 그림을 제시하여 지역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⑤ 누리집 하단에 ‘○○군으로 놀러 오세요’에서 ○○군의 관광 명소인 ‘두루미 생태 공원’과 축제인 ‘국화 축제’의 동영상 볼 수 있도록 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려 하고 있다.

#### 41.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의 ‘우리 군에서 홍보 포스터를 모집합니다.’에 쓰인 ‘에서’는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여기에서는 ‘우리 군’이라는 단체 명사 뒤에 결합하였으며, 이를 통해 포스터 공모 주체가 ‘우리 군’이라는 단체임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의 ‘모집합니다’에 상대 높임의 종결 어미 ‘-ㅂ니다’가 쓰였으나, 이는 기부에 동참한 기부자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가)를 접하는 일반 독자들을 높이는 것이다. ③ ㉠의 ‘제한함’에 명사형 어미 ‘-ㅁ’이 쓰였으나, 포스터에서 제외해야 할 내용 항목을 간결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공모의 대상이 ○○군 주민으로 한정됨을 간결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④ ㉠의 ‘기부금을 내면’에 연결 어미 ‘-면’이 쓰였으나, 제공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⑤ ㉠의 ‘제공됩니다’에 피동 접사 ‘-되다’가 쓰였으나, 오히려 피동 표현이 쓰임으로써 혜택 제공의 주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 42.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정답해설 :** ‘수영’의 발화 중 ‘직접 말로 설명하려면 회의가 길어지니까 첨부 파일 보내 줄게.’라는 내용과 이어지는 채팅창의 내용을 고려할 때, ‘수영’은 회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회의 중에 참고할 수 있는 파일을 ‘종서’에게 전송했다는 진술은 적절하

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나)는 학생들이 온라인 화상 회의를 하는 장면으로, 회의 참가자들은 음성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하고 있다. ② 회의 중간에 '해윤'은 화면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자신이 만든 그래픽 자료를 함께 보며 포스터의 구성 방식에 대한 참가자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그래픽 자료의 오류를 수정하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설아'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나연'을 위하여 '회의를 녹화해서 나중에 보내 주려고 해.'라고 말하며 참석자들의 동의를 구한 후, 화면 녹화를 하였다. 따라서 '나연'에게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설아'는 첫 번째 발화에서 '해윤'에게 소리가 너무 작다며 마이크 음량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해윤'은 '설아'의 요청에 따라 마이크 음량을 키웠다. 따라서 '설아'가 특정 참여자에게 발언권을 부여하기 위해 해당 참여자의 음량을 조절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43.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수영'의 마지막 발화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세액 공제 혜택의 제시 방법에 대해 '세액 공제는 두루미가 말을 전해 주듯 설명하면 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포스터에는 '수영'의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두루미가 아닌 스피커 모양의 그림에 말풍선을 제시하여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설아'는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 기부자를 가운데에 두자.'라고 말하였다. 포스터에서는 이러한 '설아'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부자를 중심에 배치하였다. ② '수영'은 '화살표를 곡선으로 해서 하트 모양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포스터에서는 이러한 '수영'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부 행위에 담긴 긍정적인 마음을 연상시키는 하트 모양을 사용하였다. ③ '종서'는 '찾아보니 인삼이 우리 지역 답레품이네. 이걸 그려 넣자.'라고 말하였다. 포스터에서는 이러한 '종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부자가 받을 수 있는 답레품인 인삼을 그려 넣었다. ④ '해윤'은 '우리 지역은 ~ 두루미 캐릭터로 나타내 보자.'라고 말하였다. 포스터에서는 이러한 '해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군을 두루미 캐릭터로 표현하였다.

[44~45] 매체

#### 44.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정답해설 : ㉠은 '개설 목적'과 '규칙 2'를 고려하여 언론사에서 생산한 매체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도록 링크를 제시한 것으로 사건 보도 기사를 작성하는 능력을 기르게 하기 위해 링크를 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에는 카페의 활동 주체인 '□□고 동아리 매체통'과 활동 내용인 '매체 자료 비평'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활동 주체와 활동 내용을 밝힌 '개설 목적'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은 매체 자료 유형에 따라 게시판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제시한 것으로, 이는 게시판의 성격에 맞게 매체 자료 비평 글을 올리도록 정한 '규칙 2'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에는 비평 활동 결과 제출 기한이 공지되어 있는데, 이는 활동 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정한 '규칙 1'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에서는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사유로 관리자가 게시물을 삭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 '규칙 3'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45. 매체 자료 수용의 관점과 가치

정답해설 : '재원'과 '민수'는 모두 1인 미디어 방송을 시청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근거로 '재원'은 1인 미디어 방송 가운데 신뢰성이 부족한 정보를 담은 방송이 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으며, '민수'는 1인 미디어 방송의 상업적 의도를 알아차린 경험을 근거로 들었다. 따라서 '재원'과 '민수' 모두 1인 미디어 방송의 상업적 의도를 알아차린 경험을 근거로 하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재원'은 '나처럼 여행 탐험가라는 직업을 꿈꾸는 사람'이 어디서도 얻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를 얻었다는 경험을 근거로 1인 미디어 방송이 유용하다고 판단하였다. ② '혜원'은 1인 미디어 방송인이 건강에 좋다고 강조했던 특성 성분이 아직 그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경험을 근거로 1인 미디어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④ 1인 미디어 방송의 소재에 대하여 '재원'은 '기존 매체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다양한 소재들을 다루'었다고 판단하였지만, '영진'은 이와 달리 '소재가 한정적이고 다 비슷비슷하'다고 판단하였다. ⑤ '영진'은 '고정 시청자 수가 적고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늘지도 않더라.'라고 하면서 1인 미디어 방송의 사회적 파급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지수'는 '독립운동가의 발자취 따라가기' 방송의 파급력을 예로 들면서 '1인 미디어 방송이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